

강원경제 발전 ‘지름길’ 뚫린다

올해 도내 광역 교통망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접근성 개선과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.

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우선 올해 6월 동홍천~양양고속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. 이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내 구간으로 서울~춘천고속도로, 춘천~동홍천고속도로와 연계된다. 총 71.7km로 총 사업비 2조,4000억원이 투입,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.

120.7km의 원주~강릉복선전철도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.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시운행할 계획이다. 원주~강릉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.

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원주~

동홍천~양양道·원주~강릉鐵 지역·광역 교통망 확충 활발

수도권서 2시간대 접근성 개선 관광객·기업 유치 활성화 기대

경기 광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.

이와 함께 춘천~속초고속화철도, 원주~여주철도 등 강원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사업도 예정돼 있다.

춘천~속초 간 고속철도는 향후 인천국제공항철도, 경춘선복선전철 등과 연계될 예정으로 2024년 완공되

면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2시간 이동이 가능해진다.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됐으며 올해 65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된다.

총 길이 20.9km의 원주~여주철도에는 5,000억원이 투입된다. 지난해 개통된 판교~여주복선전철, 올해 개통 예정인 원주~강릉복선전철과 연결된다. 향후 경기 시흥 월곶~판교복선전철까지 연결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다.

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“광역교통망 사업 추진 및 개통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관광객 유입과 기업 유치도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하위윤기자